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8월 3일(화)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담당자	•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440-6731 • 담당자 최병훈 ☎440-6749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십시오, 인천직할시입니다〉 전시 연장

- 인천직할시 승격 40주년 기념전시 〈어서오십시오, 인천직할시입니다〉
10월 3일까지 연장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립박물관의 인천직할시 승격 40주년 기념전시 〈어서오십시오, 인천직할시입니다〉를 10월 3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송학동 인천시민사랑집(옛 시장관사)에서 선보이고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천직할시에서 지금의 인천광역시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프롤로그’를 통해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되는 과정과 직할시의 의미에 대하여 짚어본다. 이어서 ‘그 날, 1981년 7월 1일’은 인천직할시로 승격된 1981년 7월 1일, 그 날의 행사를 조명하여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한다.

‘안녕히가세요. 여기까지 경기도 인천시였습니다’는 직할시 승격

이전 경기도 인천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반대쪽 공간인 ‘어서 오십시오, 인천직할시입니다’는 직할시 승격 이후 인천직할시가 시민들에게 점차 스며드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2점이 최초로 공개된다. 인천부 깃발과 인천 심볼마크 동판이 바로 그것이다.

깃발은 인천이 경기도 인천부로 있을 무렵인 1947년부터 1949년 중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심볼마크 동판은 인천이 부에서 시로 변경된 이후에 사용되었던 것인데, 1965년 인천 시민의 날이 제정되며 만들어진 인천 휘장이 새겨진 동판으로 인천시청(現 중구청) 외벽에 걸려있던 것이다. 지금까지 동판이 있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진 바 없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어서오십시오. 인천직할시입니다> 전시를 통해 인천시민愛집 본연의 모습과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하였을 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40년 전 축제와도 같았던 그 날의 인천을 즐기면서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032-440-6749)

<붙임> 관련 포스터 1부.

〈붙임〉 ‘어서오십시오 인천직할시입니다’ 전시회 포스터

